

민간의 자발적 시도에서 발전한 하천부지의 활용

_ 오사카 키타하마 테라스

Utilization of Riverside Land based on Autonomous Attempt
by Private-sectors_Kitahama Terrace, Osaka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아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최근, 공공공간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움직임이 세계 곳곳의 도시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이라함은 영어로 Public 또는 Common으로 번역가능한데, 지금까지의 ‘공공’은 Official로서, 공공공간이란 행정이 활동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퍼블릭 스페이스라기보다는 행정관리에 부담이 가는 행위는 금지하되 관리하기 편한 오피셜 스페이스로서 인식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도시공간에 버려져 있던 공공공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좀 더 매력적인 공간,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간 속의 주요 오픈스페이스 중의 하나인 하천 및 그 주변 공간에서도 지금까지의 접근 불가능한 오피셜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로 변화를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오사카(大阪) 키타하마(北浜) 테라스이다.

키타하마 테라스는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를 바라볼 수 있는 토사보리(土佐堀)강변의 오피스가 밀집한 지구에 위치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하천부지 위에 존재하는 데크공간’을 이른바 키타하마 테라스라 부른다. 하천의 제방 위에 만들어진 철골조의 우드(wood) 데크로서, 한 곳에서 시작한 점포가 현재 약 8개의 점포로 늘어났다. 에도시대에는 관청이 밀집해 있는 나카노시마 지구의 배후 금융 중심지로 번성하여 강변을 따라 각종 음식점과 여관 등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건물의 재건축과 함께, 강변은 건물의 뒷공간으로 변모하였고, 이를 다시 사람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주자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근본적 취지이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오피스지구를 걸을 때면 건물 반대쪽에



그림 1) 기타하마 테라스 전경1

위치한 강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지금은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강으로 오픈되어있어 걸 으면서 강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가로공간의 개방감과 함께 레스토랑과 카페 등 매력적인 점포들에 의해 활기 있는 가로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 하천공간 되찾기 활동의 시작과 경위

본 활동은 2005년부터 한 건물소유주 야마니시(山西輝和)씨의 독특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연 1회 실시되는 지역의 오마츠리(페스티벌)에 맞추어 건물 뒤의 환기팬이 고장났다는 것을 빌미로, 수리를 위한 가설발판설치허가를 행정예 신청하여 이른바 공사판의 비계와 같은 가설 데크를 매년 설치해 일일점포로 활용했던 것이 시작이다.

본격적으로는 2007년에 빌딩 소유주와 NPO법인 수변의 마을재생프로젝트(水辺のまち再生プロジェクト) 등이 참여하여 하천부지위의 데크설치를 제안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들은 모여 「기타하마 테라스 실행위원회」를 조직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룰(rule), 강의 경관을 위한 디자인 룰(rule), 우드데크에 선박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래 비전계획 등을 작성했다. 민간업자는 하천의 점용주체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반공적인 성격을 지닌 「물의 도시 오사카 2009 실행위원회(水都大阪2009 実行委員会)」를 점용주체로 지정하여 2008년 10월, 2009년 5~7월의 2번의 사회실험을 실시했다. 약 35개의 점포 중에 빌딩구조와 하천부지 상부데크의 공사비 등의 조건을 만족한 3개의 점포가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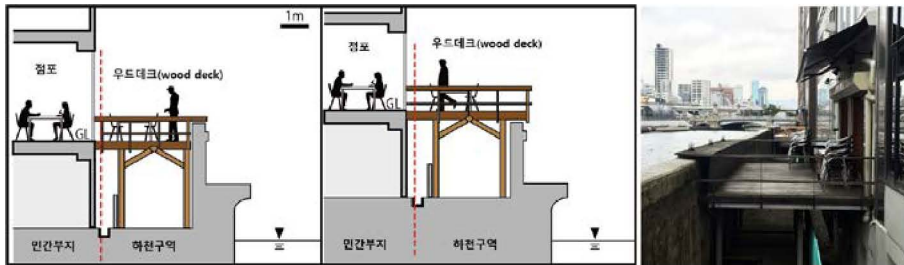


그림 2) 키타하마 테라스 단면(도면출처: 참고문헌#2 p.138 인용 및 재작성)

월간 데크를 설치한 것이다. 이는 약 2,000명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의 경관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 자그마한 자발적 시도에서 규제완화의 제도화로

키타하마 테라스 활동의 성과는 일본의 하천상의 공공공간에 대한 국가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964년에 제정된 일본의 하천법에서는 하천부지 상의 음식시설과 영리이용 및 상시점용은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부지허가준칙의 특례장치(2004년)」, 「실적에 근거한 오픈카페 등을 특례적 인정장치(2005년)」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지정한 하천구역 내에서는 사회실험의 일환으로 민간업자의 출점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9년의 「물의 도시 오사카(水都大阪) 2009」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오사카부(大阪府)는 국토교통성과 연계하여 하천부지허가준칙의 적용대상에 「하천부지 상부데크」를 규정하여 오사카부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임의단체인 키타하마 수변협회의 포괄적 점용허가(2011년)를 인정하고 하천부지 상에서의 상설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자원시스템의 구축과 지역 매니지먼트

지역 건물소유자, 세입자, NPO법인, 지역주민 등 약 65명으로 구성된 키타하마 수변협회는 2011년에 설립돼 지금까지의 사회실험으로 실시된 활동을, 상설을 전제로 한 하천부지상의 데크 설치 활동으로 전개·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 협의회가 상기한 바와 같이 반



그림 3) 기타하마 테라스 전경2

공식적 하천부지점유자로 인정되어 오사카부와 협정을 통한 강의 관리 및 점포 세입자와 행정 간의 중개역할 등을 담당한다. 하천부지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고자 할 시에는 점포 오너가 직접 자기부담으로 테라스를 설치하고 하천부지점용료와 함께 하천부지 상의 데크 활용에 관한 회비(약 100~200만원상당)을 지불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하마 수변협의회는 청소 및 관리 등 지역 매니지먼트를 위한 활동비 및 조직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부두와 연결되는 기타하마 테라스를 구상하고 있는 본 지구의 일련의 활동들은 사회실험과 같은 조그마한 시도가 하나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제도화되어 전국의 하천 어디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도톰보리 등으로도 유명한 오사카는 물의 도시라는 명칭에서와 같이 하천부지가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퍼블릭 스페이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서도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元気な街」の仕掛け人 北浜テラス川辺を望む常設の棧敷席：河川の「民活」を先駆ける, 日経BP社, 951, p.32-35, 2011
2. 日本建築学会 都市計画委員会, 地域ガバナンスと都市デザインマネジメント, 都市計画部門研究協議会資料, p.138-139, 2014